

갭 이어, 고교 졸업 후 1년 '인생 공부' 기회



▲ 갭이어는 인생의 건문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진=shutterstock

'갭이어' (Gap Year)란 말 그대로 고교 졸업과 대학 입학 사이의 틈새인 '갭'을 이용하여 1년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기간을 뜻한다. 주로 고교 졸업 후 대학입시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갭이어 허가를 받아 여행, 인턴, 취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생의 건문을 넓힌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또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합격통지서를 받지 못한 학생들도 고교 졸업 후 1년간의 갭이어를 통해 얻은 경험들을 입학 원서에 포함시켜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기도 한다.

대입컨설팅업체 '어드미션 매스터즈' (www.TheAdmissionMasters.com)의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에 따르면 하버드, 프린스턴, MIT 등 일부 명문대학 및 명문 주립대학에서도 갭이어를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한다. 고교 졸업 후 쉽 없이 곧바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갭이어를 가지고 학생들의 정서적, 지적 성숙과 사회생활을 함양하고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에서도 성공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갭이어를 허용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은 매년 80~1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갭이어를 신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 전에 혹은 학업 중간에 '숨 고르기'를 하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개발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갭이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주로 여행을 하거나, 특기나 기술 터득 및 창업, 취업 또는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어떤 분야를 전공해야 하는지 몰라 관심 있는 분야에 서 일을 하거나, 그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미리 경험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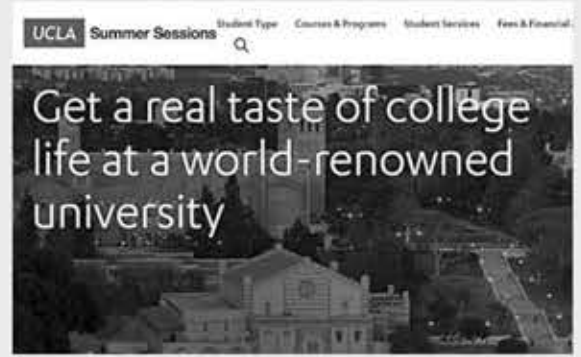
하지만 모든 대학이 갭이어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학생이 갭이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먼저 갭이어를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과 특징, 관심, 흥미, 열정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또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도를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갭이어를 가지게 되면 인생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갭이어를 갖기로 결정하면 합격통지서를 받고 나서 서면으로 대학 측에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에 주와 월 단위로 나누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적인 목표와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바라고 있는지 되도록 자세히 적도록 한다.

한편, 갭이어를 가지려고 하는 자녀를 이해할 수 없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영영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나 아닐지 걱정을 한다. 하지만 갭이어를 가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뚜렷한 목적의식과 인생관을 갖추고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자녀가 갭이어를 가져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에 대해 들어보고 그들을 격려해 주면 좋다. 자녀에게 세상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그로 인해 더 성숙해진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에게 여름 동안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1주에서 7주까지 다양하다.



▲ UCLA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 소개 화면. 사진=UCLA 홈페이지 캡처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에서는 작문, 리더십, 기업가 정신, 공학 등 다양한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많은 여름 프로그램이 기숙형과 통학형 옵션을 모두 제공한다.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 머물거나 캠퍼스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대학 교수나 방문 학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강의를 듣고 사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립인 UC계 대학을 비롯해 스탠포드, 하버드, 컬럼비아 등 많은 사립대학에서도 고등학생을 위한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부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등록 프로그램인 반면, 일부 프로그램은 지원 절차를 통해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교사 추천서, 지원 에세이, 표준화된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특정 프로그램의 입학 요건은 해당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미있고 교육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용이 많이 든다. 일부 무료 프로그램과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름 프로그램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여름 예비 대학 프로그램을 가고 싶은 대학의 여름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액티비티의 하나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름 예비 대학 프로그램은 대학 입시를 위한 액티비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고 싶은 대학의 여름 캠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대학에서 입시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순수하게 많은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여름 예비 대학 프로그램을 경험한다면 향후 대학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명 대학의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은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 지원자가 많은 만큼 지원 마감도 일찍 되므로 대학 여름 캠프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참고로 UC버클리와 UCLA의 예비 대학 여름 프로그램 관련 홈페이지를 소개한다.

UC버클리: <https://summer.berkeley.edu/student-types/high-school-students>

UCLA: <https://summer.ucla.edu/student-types/high-school-students/>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시민권 영주권 신청, 밀입국하신 미군 부모님,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